

100세 시대 평생학습 메카 발돋움

군산시 26일~28일 월명체육관·은파공원에서 문해교육 10돌 기념행사... 배우는 행복 만끽

군산시가 평생학습인의 큰 잔치인 평생학습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월명체육관과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실시한다.

군산시 문해교육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학습성과물 전시 및 학습장별 자기자랑 발표를 통해 학습자에게는 학습 동기 부여와 학습 성취욕을 고취하고 문해교사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오는 26일 월명체육관에서는 약 600여명의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자와 문해교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2017 군산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이 개최되며, 27일부터 28일까지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행사인 '2017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열린다. '배우는 행복이 시작되는 군산, 평생학습의 바다로!'란 주제로 개최되는 평생학습한마당은 홍보 전시·체험 부스, 주민자치센터경진대회, 도전 골든링, 평생학습인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관내 70여개의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 동아리 등이 40여개의 부스에서 85여개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가상현실(VR)체험, 드론 및 3D프린터 체험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체험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타 시·군과의 평생교육 교류가 확대되어 충남 서천군 외 전북 3개 시군이 행사에 동참하여 명실상부한 군산시 최고의 평생학습 축제가 될 전망이다.



군산시가 평생학습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월명체육관과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자료사진.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올해는 군산시가 전국 평생학습도시 가입10주년, 시 주도의 문해교육이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이번 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

합 위주의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평생학습이 시민의 삶의 일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유기전 건강원 유출 사실무근"

동물보호단체 의혹 조사결과 위법사항 없어... 부정행위 확인시 강력 대응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건강원에 유기견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0월 20일자 7면〉 지난 20일 익산시는 전남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의 배우자가 건강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쳤으며 위법사항은 밝혀내지 못했다.

시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구심을 근

거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없어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보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단체에서 요구한 유기견 안락사 개체수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민원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 사업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보호소를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위탁보호소장 폐사처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 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익산시는 지난 7월 이후 시스

템을 보완해 자연사와 안락사한 개체에 대한 수의사와 업무담당자 입회 후 사체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일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추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해 포획·관리 인원을 충원하는 등 시설을 규모화·현대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산학협력 활성화

1박2일 선상포럼 성료

군산대(총장 나의군)가 지난 19~20일 산학협력 방안 증대를 위한 선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취업지원과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선상포럼은 군산대의 해양실습선인 '해립호(1,057t)'를 타고 어청도 근해에 나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LINC+사업단은 군산지역의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보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효과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익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선상포럼은 협력과 단합을 다지고 발전방안을 찾아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새만금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일 지식인 공공성 구축 힘모은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내일 특별 콜로키움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나가츠카 이키라 교수와 원불교사상연구원장 박맹수 교수가 함께 하는 특별 콜로키움을 24일 오후 3시 교내 송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12년째 한일 시민동화기행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양심적 지식인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기타지마 기신, 변영호, 카타오카 류 교수를 비롯한 일본 시민운동가와 미국 시민운동가 정연진 씨를 비롯해 원불교사상연구원 공공성 프로젝트 참가자, 동학공부모임 참여자 등이 모여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1953년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이후 청일전쟁 연구에 주력한 나가츠카 교수는 일본 조선 침략사 연구의 선구자인 아베 겐타로 교수로부터 "일본 근현대사는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했으며, 2차 사료가 아닌 사실(史實)을 지시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철저한 사료 비판 속에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청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가 남긴 사료집 '건건록(蹇蹇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육군 참모본부 기록 분석을 통해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조선국왕을 포로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최고 동학 연구자로 정평이 나 있는 원불교사상연구원장 박맹수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의 리더:전봉준(全奉準)의 평화사상'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동학의 개혁과 생명사상, 공공성의 실현 등에 관심을 두고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의 평화사상을 네 가지 영역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국체전 성공개최 염원 자전거라이딩

익산시 250여명 10km 달려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오전 만경강 자전거길 사수정 윗터에서 제1회 익산시민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라이딩 행사에는 정현율 시장을 비롯한 조배숙 국회의원, 김정수 시의회 부의장, 도의원, 시의원, 자전거동호회원, 학생, 일반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만경강 자전거길을 가르며 익산의 가을을 만끽했다.

정 시장과 시민들은 오전 9시30분 만경강 제방 자전거길 사수정 윗터에서 출발해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따라 공덕대교를 반환점으로 10km 구간을 달렸다.

라이딩 행사 외에도 시립풍물단이 기념공연을 펼쳐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고, 외발 자전거 모기가 열려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정현율 시장은 "이번 행사가 자전거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공감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자전거이용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자봉센터, 문화동에 새 등지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채정룡)에서는 군산시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해 문화동에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20일, 신축 센터 광장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군산시부시장(한준수)을 비롯한 500여명의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여 센터의 신축을 축하했으며, 삼학풍물단의 풍물소리와 함께 시작된 행사

는 그동안 센터가 완공에 이르거나 지 추진했던 경과를 보고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패 증정 및 시상 시간,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제막식이 진행돼 개청식의 의미를 더했다.

새로 조성된 공간에서는 재능나눔,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교육으로 소통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에는 대지 3,446.9㎡

(1,043평), 건축연면적 1,306.79㎡(422평) 지상 2층 규모에 ▲대강당 ▲정보화 교육실 ▲교육실 ▲세미나실 ▲봉사단체활동방 ▲상담·자료실 ▲명예의 전당 ▲학생교복 재활용매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원봉사 단체 및 수요처 관리업무와 ▲재난안전 ▲프로보노(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보수 봉헌 등)전문봉사 ▲기업연계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사업들을 진행하여 맞춤형 자원봉사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국제건강기능식품 학술대회, 32개국 군산 모인다

국제건강기능식품과학회(ISNFF)에서 주최하는 제10차 국제건강기능식품학술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군산컨벤션센터(GSCC)에서 개최된다.

세계 32개국 1,500여 명의 건강 및 기능성식품 분야의 학계, 산업계,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칠 이번 학회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대비하여 '식품산업', '영양 및 건강산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학

학계 융합'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주제별 세션 강연과 특화 분야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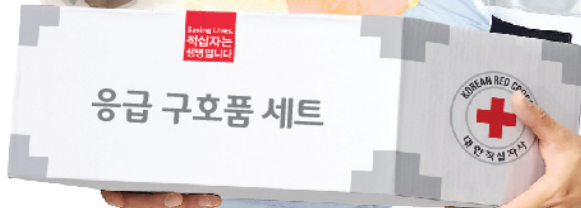
또한 대회기간 중 약 850여 편의 연구발표가 진행되며, 건강기능 관련 제품 전시회 국내 유명기업 등이 참가하고 산업시찰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주식회사 군산 공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친화적 상호네트워크를 도모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